



나눔의 연등 3천개 남산 밝힌다

대원정사, 순환도로 일대에...매주 일요일 오후 공평사거리 거리모연

화사한 꽃들이 어우러진 서울 남산 순환도로 일대에 나누는 기쁨 자비의 연등 3천개가 불을 밝힌다.

서울 추암동 대원정사(상임법사 김범준)는 4월 21일부터 5월 26일까지 경내와 남산순환도로에 이웃을 돕는 나눔의 연등 3천개를 매단다. 연등은 한 개당 3천원이며, 연등불사에 동참한 불자 및 일반인들에게는 매일 축원기도도 해준다. 문의 (02) 773-9171, 754-1613

대원정사는 등을 구입하고 만드는 비용은 물론 운영비까지 모두 사찰이 부담하고, 연등값 1천여만원은 전액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 운동' 후원성금으로 기탁한다는 방침이다. 대원정사는 '나눔의 손잡기 운동'을 후원하기 위해 5월 2일, 9일, 16일, 23일 서울 공평동 공평사거리 윙프루우 앞에서 거리모연에도 나선다. 일요일 거리 연등 모연 접수시간은 오후 2시~6시이다.

대원정사 김범준 상임법사는 "이타하면 자리가 저절로 되듯이 사찰도 이웃에게 화합하면 신도들의 활동성이 늘어나고, 사찰도 운영이 나아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며 "작은 단위사찰인 대원정사가 대승불교 실천도량으로 모범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불교 대중화 운동의 중심사찰이었던 대원정사는 2년전 김범준 상임법사의 부임과 함께 불자들과 사찰의 실천모형을 만들어 가고 있다. 지난해 자비의 등달기 운동을 펼쳐 1천58등을 매달아 수익금으로 매주 월요일 점심시간에 남산공원에서 무료급식을 실시했다. 또 서울소년원 고봉 중·고교 법회지원 및 하계 동계수련회 개최 후원, 군법당 지원사업등을 실시하고 있다. 저소득층 가정 80호에도 쌀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대원불교대학 무료교육도 사회적 화합과 결을 같이 한다. 1백30여명의 수강생들은 교육비에 준하는 비용을 사회 곳곳에 회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 만큼 앞으로 불교호스피스 교육도 실시하는 등 자원봉사자 양성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김철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대원정사 김범준 상임법사(왼쪽 첫번째)가 신도회 임원들과 자비의 연등을 매달고 있다.



■ 도와주세요

부산 불문대중합사회복지관은 장애인 및 독거노인들을 위한 사랑의 후원품을 기다리고 있다. 지원 분야는 장애인들의 날 기념 관광을 비롯해 독거노인 생신상 차려드리기, 재가노인 밀반찬 서비스 등이다. (051)264-9033

■ 소년소녀가장과 결식아동 후원

◇서울 영등포 탐사포교원 주지 무량 스님이 1급 시각장애자와 소년소녀가장 후원결연을 신청했다.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에 살고 있는 교포 장지원 보살(무량사 신도)이 본사에 소년소녀가장 돕기 성금을 매달 기탁하기로 했다.

◇서울 광진구 구의동 조미란(011-9878-6365)씨가 소년소녀가장 후원 결연을 신청했다.

◇전북 전주시 인후동 이영옥 보살이 본사 계좌로 매달 어려운 이웃들이 성금을 보내기로 했다.

■ 나눔의 손잡기 동참

◇한미음선원 안양분원(주지 해원 스님)은 네차례에 걸쳐 나눔 저금통 총 600여개를 일요법회에서 배포했다. 한미음선원 안양분원은 연말까지 총 1천여개의 나눔 저금통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장위1동 이채양씨 저금통- 3개 스티커-10장

특별취재팀 김원우 차장, 박봉영 기자, 김철우 기자

■ 나눠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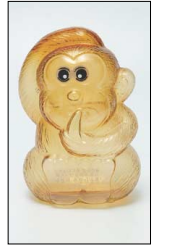
우리사회에는 현재 점심을 굶는 어린이들이 1만 4천여명이나 되고 6천여명의 소년·소녀가장, 64만여명의 독거노인 등이 한 하늘아래 살고 있습니다. 이웃들과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불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나눔 저금통 분양합니다

원숭이해를 맞아 원숭이 저금통을 분양합니다. 저금통은 회사 가정 가게 단체사무실등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특히 불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기부 모금용 저금통을 비치할 경우 '나눔의 가게'로 선정해 드립니다.

스티커 드립니다

사찰, 자동차, 건물, 가방에 붙일 수 있는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를 나눠드립니다.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는 조선일보가 전개중인 '우리의웃' 캠페인과 상호 협조에 의해 엠블럼을 공동 사용합니다.



“불법의 본질 전해주고 싶은 마음뿐”

불서 2천권 법보시하는 임채수 씨

“많은 분들이 불행속에 살고 있습니다. 한사람이라도 더 행복하고 싱그러운 삶을 살 수 있길 바라며 불법의 본질을 전해 주고픈 마음뿐입니다.”

최근 법화경 강설서 <산은 흐르고 물은 서 있다>를 출간하고 전국의 불교교양대학, 승가대학, 수행단체, 교구 본사 등에 2천 여권의 책을 이미 법보시한 임채수 법화사상 연구소 소장(69·법명 회장 부산불교신도회 고문·사진).

임 소장은 “방대한 경전에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나 지혜의 완성을 위해 노력중인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고 싶어 책 출간과 법보시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정법(正法) 만나기 전에 겪었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지혜를 만나지 못해 고통받는 다른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기 때문이었다. 임 소장은 불교 공부의 깊이를 더하고자 하는 이들에겐 <산은 흐르고 물은 서



있는 것>을, 초심자나 비불자들에게는 삶의 진솔한 얘기들로 불법의 가르침을 풀어낸 <한인 소나무의 미소>의 법보시를 발원했다. 김해 교도소에서 6년째 법화경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을 비롯, 법보시는 임 소장의 일상이 되었다. “누구에게 준다거나 베푸는다는 생각보다는 부처님께 진 빚을 갚는 것”이라는 임 소장은 “보시 중에 가장 값진 보시는 증생심에 허우적거리는 나를 가엾게 여기고,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나의 내면을 온전히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임 소장은 “평화사상인 일승과 법화사상의 섭리를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내 생의 전부”라며 바른 불법 저변화에 한 생을 바칠 뜻을 분명히 했다. (051)469-3100 천미희기자



백혈병 주황이 도와주세요

세 살배기 주황(사진)이 백혈병과 합병증 싸움을 하고 있다.

현재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투병 중인 주황이의 정확한 병명은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지난해 5월 진단을 받고 1년째 항암치료를 받고 있지만 1천 여 만원의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특히 주황이 아버지 김윤환 씨(37)가 최근 사업 실패로 10억 원 이상의 부채를 지고 있는데다가

불안, 초조, 우울감 등의 정신장애까지 호소하고 있어 주위를 더 안타깝게 하고 있다.

(사)생명나눔실천본부가 추천한 주황이에게 도움을 줄 분은 농협(063-01-243778), 예금주는 생명나눔. (02)734-8050 김철우 기자

■ 나눔의 캠페인 통장입금 현황

광주 K보살 5만원 최재순 보살 3만원

수요일은 1080 누르고 福 짓는날!

나눔의 손잡기 기금모금 ARS

전국 어디서나 일반전화·휴대폰으로 1080 누르면 '관음손'이 됩니다



현대불교신문사가 창간 10주년을 맞아 벌이고 있는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는 불자들이 보다 쉽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나눔의 ARS (060-700-1080)를 3월 26일 개통

했습니다. 삼보에 귀의하는 마음으로 일반전화와 휴대폰을 통해 060-700-1080을 누르면 3천원이 자동으로 불우이웃들이 성금으로 전달됩니다.

ARS : 060-700-1080

♥ 각 종단의 나눔운동과 연결

함께하면 큰 힘이 됩니다. 각 종단과 NGO 복지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사업과 연대합니다. 또 자비의 콘서트(불자가수) 법률 및 세무상담(불자 변호사 세무사)봉사에 참여하거나 사업연대가 가능합니다.

♥ 나눔의 손잡기 공동체

내가 가진 돈, 힘, 시간, 지식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시하도록 연결해 드립니다. 자원봉사를 원함에도 그 방법을 몰라 실천하지 못하는 불자들의 중개소 역할을 자부합니다. 모범이 되는 봉사자들을 추천해 주세요.

♥ 나눔의 손잡기 기금참여

남을 돕고 싶은 분들은 계좌나 현물의 전화로 자비를 실천하는 ARS(060-700-1080)를 통해기금을 보내주세요.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우등 우리사회에서 함께 살고있는 이웃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 이렇게 참여하세요

♥ 어려운 이웃 사연 제보

주위의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결식학생, 독거노인, 장애우의 사연을 알려 주세요.

♥ 정기후원 참여

소년소녀가장들과 결식아동들의 후원자가 되어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비나 급식비를 줄 수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과 결연을 희망하시는 분은 연락주시지요.

♥ 불자기업의 사회공헌

기업의 사회공헌은 이제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불자기업들과 불교복지시설을 연계하여 후원하거나 시설을 건립해 드립니다.

♥ 외국인노동자와 불교지도자 자매결연

불교권 국가의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계 각 종단

스님과 단체 운동가간 자매결연을 추진합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노동자들과의 결연을 희망하는 스님과 불교지도자들을 모집합니다.

♥ 각 사찰의 공양미 나누기

불자들이 보시한 각 사찰의 공양미를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들에게 지원해주세요. 어려운 곳이나 복지시설에 공양미를 보내고 싶은 사찰은 본사로 신청해주시고, 공양미가 필요한 시설은 연락바랍니다. 과일과 김장, 양념, 라면, 과자류 등 식품도 접수 받습니다.

♥ 자비의 헌혈증 및 장기기증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헌혈증을 보내주세요. 장기기증에도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보고싶은 가족찾기

미아는 물론 실종가족과 이산가족, 입양아들을 찾아드립니다. 사연을 보내주세요.

현대불교와 좋은 벗 풍경소리가 함께 하는 '나눔의 손잡기'

“어린이·청소년 법회에 찬불동요 테이프와 CD를 보냅니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좋은 벗 풍경소리가 공동으로 '전국 어린이 청소년 법회에 창작 찬불동요테이프와 CD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아름답고 순수한 부처님의 마음을 담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창작 찬불동요를 선물해 주세요.

불자님들 한 분 한 분의 정성은 미래의 부처님 되실 어린 불자들에게 '불성'을 가꾸어 주는 참된 불사가 될 것입니다.

◀ 어떻게 참여하나

◇종단·사찰·기업·단체·개인 모두 동참 가능

능합니다. ◇본사·연고사찰 단체 등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1구좌 1만원입니다. ◇보급기간: 2004년 3월부터 12월31일까지

◀ 어떻게 진행되나

◇매주 캠페인 내용이 소개됩니다. ◇매달 한번씩 동참자 명단을 게재합니다. ◇아름다운 사연을 본지에 지속적으로 소개.

※ 온라인구좌 / 농협 053-12-132878
예금주: 좋은벗 풍경소리 이종만
※ 문의 / 좋은벗 풍경소리 (02) 723-9836

